

중앙교회 가정예배서

인도자 : 가족 대표

사도신경 **다같이**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 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 송 **391장** **다같이**

1.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큰 바위 및 안전한 그 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2.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3. 측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4.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후렴)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기 도 **가족 중**

성경봉독 **누가복음 12장 15절** **인도자**

설 교 **“단순한 삶”** **인도자**

기도(합심기도) **설교자/다같이**

1. 온전한 믿음, 건강한 교회로 성장하고 부흥하게 하옵소서.
2. 지진으로 고통 받는 튀르키예(터키)에 긍휼을 베푸소서.
3. 겨울철 안전사고로부터 보호하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주기도문 **다같이**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단순한 삶

누가복음 12:15

미국만 해도 1세기 전에는 90%가 농부였고 삶은 고단했지만 단순했다. 농사를 지으며 필요한 것은 물물교환을 했고 돈은 좀처럼 사용하지 않았다. 지금은 미국인의 2%만이 농부이며 그것도 거대한 산업이 되었다. 현대 사회에서 광고는 이런저런 제품을 사면 행복해질 것이라는 거짓말을 믿게 만든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우리에게 필요한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 수입(물질적 부)이 늘면서 행복이 늘지만, 수입이 75,000달러를 넘으면 행복은 유지되거나 오히려 하락했다. 세상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진다고 주장한다. 장 보드리야르는 서구 사회를 물질주의가 주된 의미체계로 된 사회로 규정한다. 기독교를 쇼핑으로 대체했다. 현대인은 소비하면서 삶의 의미를 얻는다. “내가 사는 것이 곧 나다.” 미국에서 쇼핑은 가장 인기 있는 레저 활동이다. ▶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미니멀리즘, 단순한 삶이다. 미니멀리즘은 단순함에서 우리나라는 미(美)를 추구하는 사회 철학 또는 문화·예술적 사조를 말한다. 단순한 삶의 현세적인 표현이다. 아무것도 없이 사는 것이 아니라 적은 것으로 사는 것이다. 자발적으로 불필요한 물건과 일을 줄여 본인이 가진 것에 만족하는 게 특징이다. 물건을 적게 소유하면서 생활이 단순해지고 나중에 마음과 생각이 정리되면서 오히려 삶이 더 풍요로워진다. 미니멀 라이프의 효시는 미국 작가 헨리 데이비드 소로로서 그의 『월든』이란 책에서 시작했다. 좋은 차, 큰 집, 넘쳐나는 물건을 가졌지만 주 70~80시간 일하고 더 많은 물건을 사들이는 일로는 공허함을 채울 수 없다. ▶산상수훈 중 물질에 대한 말씀이 나온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마 6:19).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마 6:20). 한 마디로 단순하게 살라는 것이다. “네 보물이 있는 그 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마 6:21).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마 6:22). 성한 눈이란 ‘단일 초점의 눈’이다. 대상 하나만을 바라보는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이다. 삶의 단순성은 기쁨을 가져온다. 이중성은 불안과 공포를 가져온다. 단순성은 내적인 것이지만 외적 생활로 나타난다. 하나님의 단순성 안으로 들어갈 때 통합과 평화로 대변되는 외적인 삶의 질이 확보된다. 가장 중요한 것에 집중하여 사는 것 즉 소중한 것을 먼저 하는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본회퍼는 “단순해진다는 것은 모든 개념이 혼동되고 왜곡되고 전복될 때 하나님의 단순한 진리에만 시선을 고정하는 것이다”라고 했다. ▶누가복음 12장에는 형과 유산 분배를 다투는 동생이 나온다. 예수님은 그를 보면서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의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눅 12:15)고 하셨다. 근원적 문제는 탐심이다. 생명이 소유에 달려 있지 않다. 소유가 많다고 생명이 풍성해지는 것이 아니다.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보면 그는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 지혜로운 사람, 부러운 사람이지만 영적으로 보면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라고 하면서 어리석은 소리를 한다. 물질로 영혼을 달랠 수 있다고 생각했다. 물질적 소유를 단순히 자기가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기기 위한 것으로 생각했다. 하나님은 오늘 밤에 그 영혼을 도로 찾으시겠다고 한다. 그의 재물과 그의 영혼은 어떤 운명을 맞게 될 것인가? 부자가 물질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부자를 소유했다. 그런 점에서 우리는 염려하지도 말고 물질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 살아야 한다. “당신에게 소중한 가치는 무엇입니까?” “진정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물질을 구매할 때도, 시간을 사용할 때도 중요한 것을 중심으로 재편하라. 단순화하라.